



조 정 래 사무관
농림부 축산경영과

겨울이 오기 전에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느 덧 출근길 도로가의 가로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다.

지난 여름 잦았던 비로 인해 하루 빨리 청명한 가을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003년~2004년에 이어 우리나라에 찾아든 HPAI 발생이 계속되고 있던 올해 2월 양계업무를 맡고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자칫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나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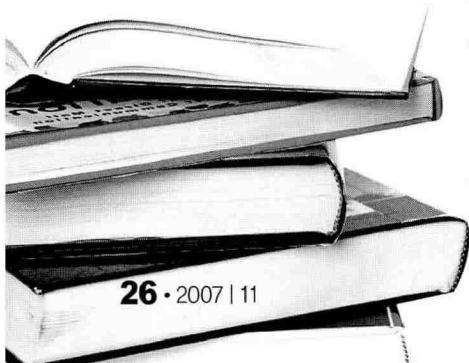
모두들 봄소식과 함께 산과 들로 떠날 때에도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밤새 신고는 없었는지를 챙기고, 오후가 되면 방역협의회에 참석하면서도 추가발생은 없었는지 살피는 일이 일상이 돼버렸다.

반복되는 일과속에서도 그나마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업무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 우리나라의 HPAI에 대한 청정화 선언을 함으로써 추가 발생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으나,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다.

HPAI 여파로 인한 소비부진은 양계산업의 성수기인 삼복이 지나서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삼복을 전후한 일기불순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출하대기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특히, 토종닭 업계는 생산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지가격으로 인해 농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단체와 더불어 토종닭 50만수를 조속히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한시적인 할인판매를 실시토록 수급안정자금을 지원해 산지가격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돌이켜 보건대 이와 같은 조치가 없었더라면 지금까지도 토종닭 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 당시의 판단과 일련의 조치는 매우 적절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농가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 철새가 날아들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여느 때와 달리 반갑다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양계산업의 한 부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환경보호를 위한 철새보호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어렵게 이루어낸 HPAI 청정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사전에 대비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농가는 스스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정부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비상체제로 들어가는 등 각자 맡은 역할에 소임을 다할 때 HPAI는 우리 곁에 감히 다가올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 곧 낙엽은 다 떨어지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다가온다.

성급한 마음은 다가오는 겨울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양계산업의 불황을 모두 함께 날려 버리고, 화사한 봄별 아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햇병아리가 엄마 닭을 뒤쫓는 한가로운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겨울이 오기 전에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